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3년 7월조사 -

2013년 8월 5일
 주식회사 데이코쿠테이타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경기 DI는 43.6, 전월대비 1.1 포인트 증가로 2개월만에 개선

~ 「중소기업」에도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타남 ~

(조사대상 2만3,226사, 유효회답 1만395사, 회답률 44.8%, 조사개시 2002년 5월)

< 2013년 7월의 동향 : 계속해서 상승경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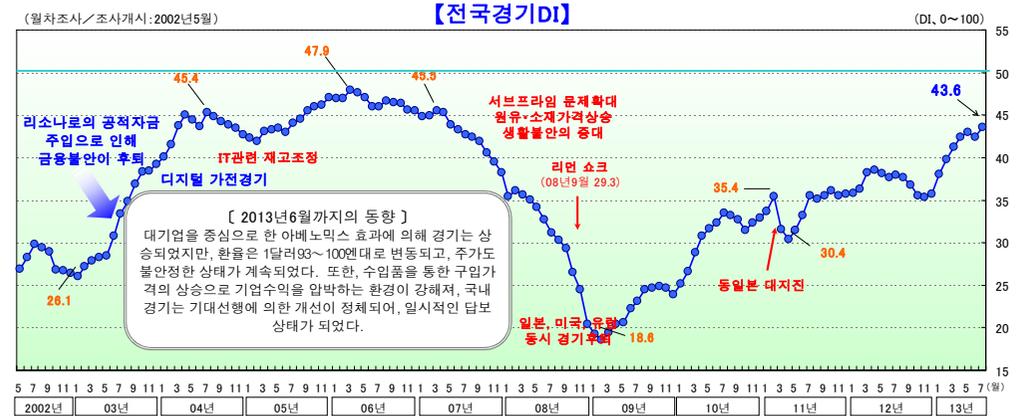
2013년 7월의 경기동향지수(경기 DI: 0~100, 50이 판단분기점)은 전월대비 1.1포인트 증가해 43.6이 되어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서브프라임문제 확대전의 2007년 5월(43.8) 이래 6년 2개월만의 높은 수준.

7월 금융시장은 안정된 상황이 계속되었다. 평년보다 이른 장마는 여름 관광시즌의 개인소비에 좋은 영향을 가져왔다. 또한, 참의원 선거로 중참의 갈등이 해소되어, 장기정책을 수행할 기반이 생겼다. 게다가, 주택에 대한 막바지 수요가 철강과 건재·가구·가전 등 관련산업으로 확대를 보여, 『건설』 『부동산』 『제조』 『운수·창고』 등을 중심으로 10업계중 9업계, 51업종중 36업종이 개선되었다. 규모별로는 지금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 효과가 중소기업에도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2013년 2월이래 5개월만에 전체 10지역이 개선되었고, 『홋카이도』가 처음으로 1위가 되었다.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국내경기는 엔저로 인한 수출증가와 더불어 내수관련으로는 주택판매도 개선되어, 계속해서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포인트

- 『건설』은 부흥수요에 에너지절약과 자연에너지에 관한 설비투자 등도 더해져,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손부족에 따른 임금상승뿐 아니라 가격전가가 힘든 상황에 있어, 기업수익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 『부동산』은 토지가격이 상승을 보이며 개인의 구매의욕이 높아진 가운데,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REIT 관련과 개인자산가용 수익물건의 매매가 호조였으며, 막바지 수요 등으로 맨션판매가 오름세에 있다.
- 『홋카이도』 『키타칸토』 등 전체 10지역이 모두 개선되었다. 『홋카이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이 개선되고, 『제조』와 『운수·창고』도 2개월만에 개선되는 등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전체 10지역중 1위가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회복경향 지속 >

2014년 4월에 예정되었던 소비세율 인상은, 막바지 수요와 그 반동을 가져와 경기변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당분간은 가솔린 가격의 상승과 전기요금의 가격인상이 원가를 상승시켜, 가격전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익환경 악화가 염려된다.

한편, 기상청의 3개월 예보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에 걸친 평균기온이 평년치 정도거나 조금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여름철 계절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공공사업도 본격화될 뿐더러 소비세율 인상전의 막바지수요는 주택관련과 더불어, 자동차와 가구 등의 내구소비재와 복식품, 일용품 등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수출증가와 설비투자의 확대 등의 업적향상이 기업활동에 대한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참의 갈등 해소로 안정된 정치에 따른 정책이 기대된다.

해외경제 위험성을 고려해도 공공사업과 수출, 막바지 수요 등 호재가 많아, 국내경기는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경기DI	2012년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1월	2월	3월
	37.9	37.7	36.8	35.5	35.3	35.7	38.0	39.8	41.3
전월대비	0.3	▲0.2	▲0.9	▲1.3	▲0.2	0.4	2.3	1.8	1.5
경기DI	2013년4월	5월	6월	7월	경기예측DI	1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년후
	42.4	43.0	42.5	43.6		44.3	44.8	45.3	47.7
전월대비	1.1	0.6	▲0.5	1.1	2013년7월대비	0.7	1.2	1.7	4.1

※1: 색상이 없는 부분은 개선, 황색은 보합, 청색은 악화를 나타냄
 ※2: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10 업계중 9 업계가 개선

• 『금융』이 3개월만에 『농·임·수산』 『건설』 『부동산』 『제조』 『도매』 『소매』 『운수·창고』 『서비스』가 2개월만에 개선되어 10 업계중 9 업계가 개선되었다. 중국경제는 조립업체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중국진출」(44.1)기업의 경황감은 전월대비 1.3 포인트증가로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 『건설』(49.4)… 전월대비 1.9 포인트 증가. 대형보정예산을 토대로 한 부흥수요와 소비세율 인상전의 막바지 맨션수요가 높아진데다, 에너지 절약과 자연에너지에 관한 설비투자 등으로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일손부족에 따른 임금상승이 일어나고, 원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판매가격에의 전가가 힘든 상황으로 기업 수익면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보정예산의 집행으로 인해 공공사업의 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훗카이도』(54.4, 동 3.3 포인트 증가)와 관공서수요와 주택관련이 호조인 『시코쿠』(51.8, 동 4.7 포인트 증가)등 전국 10 지역 모두 개선되었다.

• 『부동산』(49.3)… 동 1.6 포인트 증가.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추가상승의 영향을 받아 REIT 관련과 개인자산가용 수익물건의 매매가 호조」(부동산대리·중개, 미나미칸토)였고 소비세율 인상전 막바지로 맨션판매 등이 호조를 보이며 『호쿠리쿠』(45.8, 동 4.1 포인트 증가), 『토카이』(51.7, 동 5.0 포인트 증가), 『츄고쿠』(52.1, 동 2.1 포인트 증가), 『큐슈』(48.4, 동 3.3 포인트 증가)등 전국적으로 개선된 지역이 많아 10 지역 중 9 지역이 개선되었다. 미약하게나마 토지가격이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의 구매의욕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축원가도 상승해 「가격전가가 어렵다」(큐슈)라는 지적도 보였다.

• 『제조』(41.4)… 동 1.4 포인트 증가.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지진재해 부흥과 주택 착공호수의 증가, 국내 자동차생산확대 등으로 개선된 「철도·비철·광업」(42.3, 동 2.5 포인트 증가)과, 태양전지 제조업체의 생산확대와 LED 관련에의 투자증가, 엔저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영향을 끼친 「전기기계제조」(42.3, 동 2.1 포인트 증가), 엔저로 양지 등의 수입이 저조해져 국내 제지업체의 플러스요인이 된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36.0, 동 1.1 포인트 증가)등, 『제조』는 전체 12 업종이 개선되었다.

• 『운수·창고』(42.9)… 동 1.2 포인트 증가. 공공공사의 발주증가에 따른 운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수는 증가추세에 있어, 개인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관련도 확대되어, 『운수·창고』는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한편으로, 차량부족과 택시 등의 운전자 부족으로 수익개선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12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34.5	35.8	35.2	33.3	33.7	34.9	36.0	36.8	35.7	35.4	39.7	39.5	41.0	1.5		
금융	37.7	37.7	37.5	35.7	36.1	36.2	41.3	42.4	41.9	44.7	44.4	44.0	44.6	0.6		
건설	37.2	38.0	38.1	38.6	39.0	38.7	41.9	43.8	45.3	46.4	47.6	47.5	49.4	1.9		
부동산	39.2	38.5	38.3	36.7	35.7	37.0	40.9	45.7	46.8	48.8	49.2	47.7	49.3	1.6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34.5	33.8	34.7	33.4	32.7	33.4	34.5	35.6	36.8	38.7	38.1	38.7	39.3	0.6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7.9	35.9	36.0	33.7	33.1	35.6	36.9	37.3	38.1	39.9	37.8	37.8	40.2	2.4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36.4	35.6	37.9	36.4	37.0	38.2	38.9	40.3	42.7	43.4	45.3	46.5	47.4	0.9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3.6	34.7	32.7	30.2	30.8	31.1	33.3	33.0	36.0	37.0	38.2	34.9	36.0	1.1	
	유관·인쇄	28.5	29.6	28.6	29.1	29.2	28.3	29.6	31.4	32.8	32.8	33.1	31.9	32.1	0.2	
	화학제품	39.2	39.2	36.4	35.0	33.3	34.1	36.4	38.0	39.9	41.0	42.6	42.1	42.4	0.3	
	광업·비철광·광업	38.0	37.2	35.6	32.1	31.9	32.6	35.5	37.6	38.5	39.7	40.0	39.8	42.3	2.5	
	기계제조	38.6	37.8	36.4	34.0	33.4	32.7	36.3	39.2	39.8	40.0	41.0	40.8	42.8	2.0	
	전기기계제조	38.2	37.2	34.8	32.6	31.8	32.8	35.8	38.2	38.4	40.1	41.9	40.2	42.3	2.1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4.4	43.1	40.5	33.3	32.8	32.6	34.2	41.2	45.6	47.0	46.5	47.6	48.0	0.4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39.7	39.4	36.2	33.5	32.5	32.4	33.6	36.5	36.7	39.6	39.3	38.7	39.3	0.6	
	기타 제조	33.5	32.1	32.2	29.2	30.8	31.0	31.3	34.8	35.4	36.6	33.3	33.7	35.9	2.2	
전체	37.0	36.5	35.4	33.1	32.6	33.1	35.3	37.4	38.6	39.7	40.3	40.0	41.4	1.4		
도매	식품료품도매	36.2	35.2	34.1	32.4	33.5	33.9	34.6	35.3	37.1	38.0	39.4	38.6	39.7	1.1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3.8	34.4	31.8	32.0	32.4	34.3	34.7	34.6	34.5	37.5	36.4	36.3	36.6	0.3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6.9	37.6	37.3	38.3	39.3	39.9	42.2	43.5	44.5	46.3	46.1	46.8	47.7	0.9	
	종이·펄프·목구·서적도매	32.2	30.9	32.8	28.0	30.2	31.7	31.8	32.3	34.3	36.3	36.5	35.3	35.2	▲0.1	
	화학제품도매	38.5	37.6	36.7	35.6	35.1	34.6	35.9	36.1	38.5	39.7	41.4	40.2	41.0	0.8	
	재생자원도매	29.0	35.1	27.0	22.4	30.1	32.1	41.9	48.8	50.6	50.6	46.6	43.1	46.5	3.4	
	광업·비철광·광업제품도매	35.2	35.7	33.6	32.6	31.6	34.0	37.3	38.2	40.2	38.7	39.9	39.0	41.4	2.4	
	기계·기구도매	38.8	37.9	36.9	34.6	33.7	34.1	36.8	38.8	41.0	42.1	41.9	40.4	42.3	1.9	
	기타 도매	36.0	35.5	34.1	32.8	32.8	32.2	34.0	35.3	37.1	38.1	39.3	38.8	38.9	0.1	
	전체	36.8	36.4	35.3	33.9	33.9	34.5	36.5	37.7	39.5	40.5	40.9	40.1	41.4	1.3	
	소매	식품료품소매	35.5	37.2	36.7	33.1	34.7	30.6	32.9	38.8	40.5	40.5	41.0	38.2	40.0	1.8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4.2	34.0	32.2	32.9	35.5	32.9	34.6	34.8	41.4	40.7	38.6	39.2	38.6	▲0.6
의약품·의료용제품소매		45.3	45.8	43.8	42.3	44.4	47.7	49.4	45.7	44.9	44.7	50.7	44.0	46.7	2.7	
가구류소매		42.4	39.3	36.1	32.1	34.7	38.9	37.5	44.4	46.2	50.0	50.0	48.8	57.4	8.6	
가전·정보기구소매		38.9	41.1	40.4	33.8	33.3	34.1	39.5	38.7	41.7	44.1	42.1	47.5	44.1	▲3.4	
자동차·동 부품소매		46.0	40.8	41.5	36.9	31.5	32.1	41.2	42.9	49.4	43.4	47.2	43.8	45.0	1.2	
전용상품소매		35.3	33.6	33.0	32.4	32.7	33.0	32.7	35.1	37.0	36.9	37.2	37.0	37.0	0.0	
각종상품소매		39.7	37.1	36.3	35.8	35.3	35.5	38.4	40.5	42.8	45.5	46.9	46.2	45.7	▲0.5	
기타 소매		46.7	47.6	36.1	33.3	33.3	36.7	36.7	31.0	33.3	40.5	35.7	38.9	37.5	▲1.4	
전체		38.3	37.3	36.4	34.2	34.2	34.0	36.3	38.4	41.2	41.1	41.9	40.9	41.1	0.2	
운수·창고		39.2	39.5	37.6	36.7	35.3	36.9	38.0	39.5	40.6	41.5	42.6	41.7	42.9	1.2	
서비스		음식점	39.6	41.7	39.6	36.0	32.4	35.4	35.7	37.8	43.5	43.8	48.0	47.5	45.2	▲2.3
	전기통신	47.0	53.0	50.0	45.2	48.7	48.7	53.8	53.0	55.0	56.4	55.0	54.5	51.7	▲2.8	
	전기·가스·수도·열공급	40.0	35.4	41.7	37.0	42.6	37.5	43.8	45.8	40.5	48.1	48.1	51.7	48.1	▲3.8	
	리스·임대	44.2	43.6	43.8	43.3	43.7	45.2	45.3	48.4	49.9	49.6	50.7	50.7	51.2	0.5	
	관광·호텔	42.4	42.2	41.7	38.1	40.0	37.2	38.4	40.1	45.8	48.2	49.1	48.3	51.4	3.1	
	유력서비스	33.3	36.1	35.0	37.4	36.2	36.7	38.5	38.5	40.6	41.0	38.5	40.5	36.7	▲3.8	
	방송	39.2	40.2	41.2	38.2	40.6	38.5	41.7	37.8	43.8	43.5	49.0	44.0	45.1	1.1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38.1	38.9	39.7	37.7	38.4	37.6	40.7	44.0	43.3	43.3	44.8	43.7	43.5	▲0.2	
	광고관련	37.3	36.1	35.9	35.1	34.7	34.5	35.4	38.9	40.8	42.5	42.4	42.6	42.3	▲0.3	
	정보서비스	43.9	43.7	42.5	42.2	42.8	42.2	45.2	47.3	47.7	49.5	49.3	48.7	49.4	0.7	
	엔터테인먼트·소매	49.2	50.0	48.8	46.6	42.8	44.9	44.7	48.7	50.3	50.3	50.6	52.2	52.6	0.4	
	전문서비스	41.2	41.6	41.1	40.5	40.4	41.1	44.3	46.9	47.3	48.7	50.8	47.7	50.4	2.7	
의료·복지·보건위생	43.5	43.8	43.4	41.8	41.1	40.8	45.3	45.7	48.0	49.0	48.8	47.3	45.7	▲1.6		
교육서비스	41.0	43.2	39.3	42.3	40.1	38.3	46.8	46.8	45.3	48.0	47.0	46.7	46.4	▲0.3		
기타 서비스	44.3	42.8	42.9	41.1	40.7	39.5	42.2	42.1	44.7	44.7	46.2	46.2	47.0	0.8		
전체	42.0	42.1	41.5	40.6	40.5	40.5	43.0	45.0	46.2	47.3	47.9	47.2	47.6	0.4		
기타	40.0	35.6	38.7	37.4	36.0	36.2	36.7	33.8	35.7	42.3	41.5	41.4	38.9	▲2.5		
격차 (10개업계별 「기타」 제외)	7.5	6.3	6.3	7.5	7.9	7.4	7.7	8.9	11.1	13.4	9.5	8.2	8.4			
중국진출	40.5	38.9	37.4	35.7	35.0	35.5	37.5	39.2	40.3	42.3	43.5	42.8	44.1	1.3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회하는 개선폭, 2개월만에 전규모 개선

- 「대기업」(47.0, 전월대비 1.1 포인트 증가), 「중소기업」(42.6, 동 1.2 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42.2, 동 1.1 포인트 증가)모두 개선되었다. 「중소기업」의 개선폭이 「대기업」의 개선폭보다 커 규모 간격차는 4개월만에 축소되었다. 아베노믹스 효과의 파급이 지연되고있는 「중소기업」의 경황감이 개선되는 등, 2개월만에 전체 규모가 모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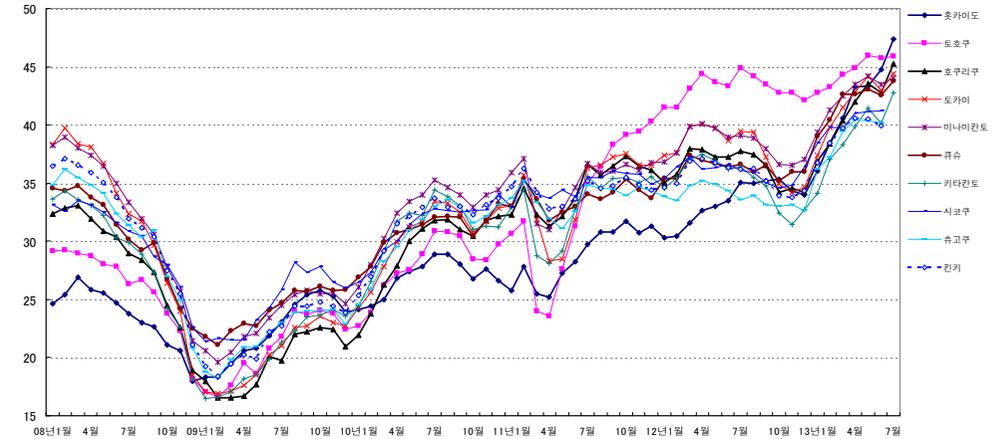
	12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대기업	40.8	40.3	39.5	38.2	38.4	38.7	41.0	42.9	44.2	45.3	46.4	45.9	47.0	1.1
중소기업	37.1	36.9	36.0	34.6	34.4	34.7	37.1	38.9	40.4	41.5	42.0	41.4	42.6	1.2
(그 중 소규모기업)	35.4	35.2	35.0	34.0	33.6	33.9	36.9	38.9	40.1	41.2	41.6	41.1	42.2	1.1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7	3.4	3.5	3.6	4.0	4.0	3.9	4.0	3.8	3.8	4.4	4.5	4.4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포함,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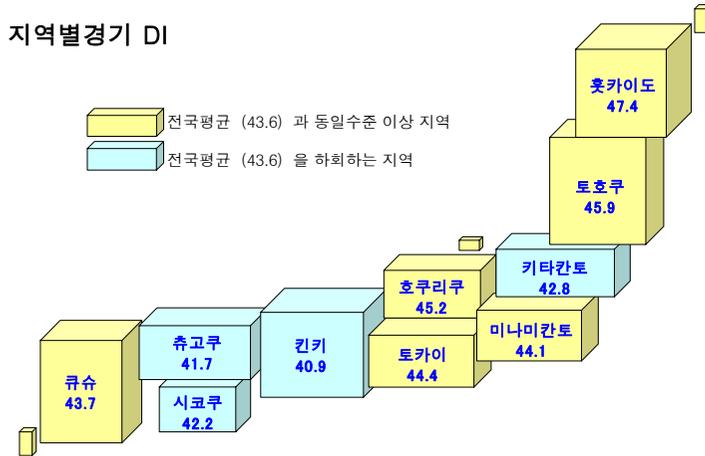
지역별 : 2013년 2월이래 5개월만에 전체 10지역이 개선, 「홋카이도」는 조사개시 이래 첫 전국1위

- 「**홋카이도**」(47.4)··· 전월대비 2.6 포인트 증가. 7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공공공사의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설』(54.4, 동 3.3 포인트 증가)이 7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고 『제조』(43.1, 동 4.5 포인트 증가)가 2개월 연속, 『운수·창고』(42.9, 동 4.5 포인트 증가)가 3개월만에 개선되는 등, 10업계중 6업계가 개선되었다. 전국 순위도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1위로 상승했다. (전월 : 제 2위, 전년동월 : 제 9위) 또한, 행정구역별 순위에서도 5위로 과거 최고순위가 되었다.
- 「**기타칸토**」(42.8)··· 동 2.7 포인트 증가. 2개월만의 개선으로, 10지역 중에 최대 개선폭이 되었다. 공공공사의 발주와 견적건수가 증가한 『건설』(48.4, 동 1.8 포인트 증가)과, 소비세 인상전의 주택착공과 함께 호조를 보이는 건재관련을 포함한 『제조』(41.1, 동 3.1 포인트 증가), 엔저에 의해 호조인 자동차관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운수·창고』(47.1, 동 7.5 포인트 증가)등, 10업계 중 7업계가 개선되었다.
- 「**토호쿠**」(45.9)··· 동 0.1 포인트 증가. 대형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기업의 생산증가와 가전제품의 부품생산 증가 등이 좋은 영향을 끼친 『제조』(42.0, 동 1.6 포인트 증가)와 『운수·창고』(40.7, 동 2.2 포인트 증가)등 10업계 중 6업계가 개선되었다. 한편, 엔저로 인한 구입가격의 상승과 연료유 가격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소매』(39.2, 동 2.1 포인트 감소)등 4업계가 악화되어, 전국 순위는 1년 11개월만에 전국 10지역 중 2위로 후퇴했다.

지역별그래프 (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경기 DI



	12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35.1	35.0	35.2	35.3	34.3	34.0	36.1	38.4	40.5	43.2	43.3	44.8	47.4	2.6
토호쿠	44.9	44.2	43.5	42.7	42.8	42.1	42.8	43.3	44.3	44.9	45.9	45.8	45.9	0.1
기타칸토	36.4	35.5	34.8	32.4	31.4	32.7	34.1	37.1	38.3	39.9	41.4	40.1	42.8	2.7
미나미칸토	39.1	38.9	37.9	36.6	36.5	37.1	39.4	41.3	42.5	43.5	44.2	43.5	44.1	0.6
호쿠리쿠	37.7	37.5	36.5	34.2	34.6	34.2	36.9	38.4	40.3	42.0	43.5	42.8	45.2	2.4
토카이	39.4	39.3	37.3	34.9	34.2	34.6	37.4	39.8	41.5	42.8	44.2	43.0	44.4	1.4
킨키	36.2	36.3	35.2	33.9	33.8	34.3	36.7	38.5	39.7	40.6	40.5	40.0	40.9	0.9
츄고쿠	33.5	33.9	33.1	33.0	33.1	32.6	36.2	37.2	39.4	40.4	40.4	40.2	41.7	1.5
시코쿠	36.1	35.9	35.1	34.6	34.8	36.4	38.4	39.8	39.7	41.0	41.2	41.2	42.2	1.0
큐슈	36.6	36.0	36.5	35.2	36.0	36.0	39.0	40.5	42.6	42.6	43.0	42.5	43.7	1.2
격차	11.4	10.3	10.4	10.3	11.4	9.5	8.7	6.2	6.0	5.0	5.5	5.8	6.5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포함,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또는 감소를 나타냄.